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

□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9월 16~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<u>**0~0.25%로 동결**</u>함

-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경기위축,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반영

- FOMC위원 중 1명만 0.25% 인상에 찬성

□ 미국 장기국채금리 하락, 달러 약세, 주가 소폭 약세 시현

- 10년물 국채 : 0.10%p 하락(2.19%)
- 달러/유로 : 0.014달러 상승(1.143달러)
- 엔/달러 : 0.57엔 하락(120.0엔)
- 주가 : 다우 0.4%하락, 나스닥 0.1%상승
- 금시세 : 온스당 12.1달러 상승(1.131.6달러/온스)

향후 전망

□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이번 금리 결정시 대외변수(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상황)를 중요변수로 고려한 점에 비추어 이들 변수가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당분간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FOMC 위원 중 3명은 2016년중, 1명은 2017년중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

□ 그러나 세계경제변수가 미국 통화정책결정의 중요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

- 이와 관련하여 옐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첫번째 금리인상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10월 중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

□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으나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

(금리)

- 수출 및 소비부진으로 2016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%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어도 내년 중 금리인상은 어려울 전망

(자금유출입)

- Fed가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를 시장에 확신시킨다면 장기국채금리 상승 및 달러화 강세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경상수지 흑자 지속, 낮은 단기 외채 비중, S&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음

(환율)

- 미국 금리인상 예상이 이미 원화 환율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